

※ **진흥회 동정**

2001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성황리에 폐막

■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국내 전기산업의 활성화 및 수출촉진을 위해 10. 16 - 19 (4일간)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하였던 2001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이 3억5천만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 이번 전시회 참가 제품들을 보면 Digital화 된 신제품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대거 출시되었으며, 디자인도 과거보다 많이 세련되어 참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IT 산업의 붐으로 중전기기의 수출에 큰 부분을 차지한 LG전선, 대한전선 등의 전선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지난 여느해 보다 풍성한 박람회라 될 수 있었다.

■ 이번 전시회 기간 중에 가장 역점을 둔 부대행사는 KOTRA와 공동으로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10월 17일에 개최된 세계각국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로서,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인해 제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를 위해 일본전력회사 및 미국, 영국, 스페인,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등 세계각국의 전력기자재 바이어 11개국 60여명을 초청하여 173 백만불의 상담 실적과 6.7 백만불의 계약을 추진하는 등 우리 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 또한, 제조물 책임법(PL)을 '9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2008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전력기자재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PL법 전문가를 초청,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위한 PL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참가 업체 및 방문객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은 부대행사로는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가 자사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개최한 『신기술 발표회』로 일부 업체는 준비한 자료가 동이 날 정도로 관심이 많았으며 이에 2003년에는 좀 더 많은 업체의 신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 한편, 전기산업의 수출증대와 기술 개발에 공로가 큰 업체 및 임직원에게 정부 포상과 성공적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관계기관, 단체, 참가업체들과의 기념리셉션을 개막일 저녁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하여 전기인들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해외업체 참가자들과 동경전력, 관서전력 등 일본 전력회사 구매 사절단도 함께 참석하여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일본 내 전력요금 인하를 위해 한국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를 밝혔다.

■ 반면 6회째를 맞아 전년도 보다 참관객이 20% 증가하였을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행사도 성대하게 치루어 졌으나, 행사에 비해 주최측에서 기대한 것보다 다소 적은 국내 참관객과 세계각국 바이어들의 방문자수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대외적으로

이는 미 테러사건과 연이은 보복공격에 대한 불안으로 해외여행을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일본의 중국전력, 중부전력 및 협력회사들은 방문예정 1주전에 방한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 한편, 진흥회에서는 전시회 발전을 위해 업계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SIEF 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전시회는 보다 내실있고 국제전으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며, 『2002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은 11. 4 - 7(4일간)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다.

2001년도 제2차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지원대상 용자사업자 확정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10월11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제2차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지원 신청과제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쳐 기금지원 용자대상사업자를 확정하고 기금을 지원한다. 한편 이 기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생산기술개발사업(91-95) 기술료를 기금화하여 중전기기 연구개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이 확정된 내용은 ▲(주)한창트랜스 일체형 실리콘하우징 피뢰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주)이엔아이 실리콘 재질의 15KV, 24KV용 배전선로형 폴리머 현수애자 ▲우토라이팅(주) 천장매입형 고효율 형광등 및 전용 전자식 안정기 개발 ▲동진모타공업(주) 수출전략형 Blower Motor

개발 ▲(주)해도이노베이션스 태양전지식 송전선 항공장에 표시구 ▲경남산기 GIS 탱크 및 변압기 외함을 가공하기 위한 전동공구 개발 ▲일신에너지(주) 바이오가스, 가스/디젤 겸용 발전기 개발 ▲성원전기공업(주) 전동기의 슬롯트 및 상간 절연물 향상 제조기술 개발 ▲(주)태영기전 실용성·다양성 기능을 겸비한 Control Panel 개발 등으로 9개 과제에 총 2,754백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3월에는 1차로 11개 과제 4,92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동 개발자금은 용자기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용자금리 연 5%의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며, 자체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는 진흥회와 기금지원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사업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2001년 제4차 산업기술개발자금지원 용자대상사업자 선정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10월11일 진흥회 회의실

에서 산업기술개발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제4차 자금지원대상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 산업자원부에 융자사업자 확정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과제는 ▲(주)동해 신 대기능 가선장치 ▲삼흥중전기공업(주) 초고압용 대용량 ZnO 바리스타 개발 ▲원일기술(주) 메탈 할라이드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기돈 초 절약형 수전설비 등 4개 과제로서 21억9천3백만원의 지원기로 하였다. 이들 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최종 확정절차

를 거쳐 융자금리 연 5.0%,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을 받게된다.

한편 이번 지원은 올해 배정금액인 60억원을 3차에 걸쳐 업체에 전액 지원하고 타 분야의 잔액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산업 분야의 활발한 개발열기를 실감하게 하며, 진흥회에서는 내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정부에 전기산업분야 배정규모의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성장잠재력 큰 인도네시아 전기박람회 참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국내 중전기 11개사와 함께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자카르타 전기박람회 (Electric Indonesia Series 2001)에 참가한다.

■ 동전사회는 그동안 진흥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동남아 시장 공략의 마지막 프로젝트로서 국토의 많은 부분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인도네시아시장 진출 및 기존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로서 전기산업진흥회에서는 2000년부터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동남아시아의 국내 업체 진출에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이번에 출품하는 업체들로서는 보국전기공업(발전기), CP시스템(케이블체인 및 악세사리), 크로스티이씨(무정전전원장치), 대림전자(부품용 변

압기), 만강전자(계측기), 남성기업사(부스바가공기), 피엔씨테크(RTU), 삼화기연(모터보호 계전기), 상원전기(차단기류), 신영중전기(변압기), 유성계전(전력보호시스템)등으로 다양한 제품의 업체들이 참가하여 여느때 보다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동 전사회는 산업자원부에서 KOTRA를 통해 부스 임차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전시품 운송비, 통관비, 추가 가구 임대비, 안내요원 고용비, 항공비, 체재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아쉬운 표정들이다.

■ 진흥회는 한국관을 통해 국내 중소 중전기 업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2002년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2002. 11. 4 ~ 7)의 홍보 및 해외업체 국내투자 유치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오는 11월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소재 한화 콘도에서 「제4기 전기산업 수출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양성교육은 내수위주의 중전기 기산업을 수출산업화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우수 인력 양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출행정 습득기회 제공, 수출시장 개척마인드 제공으로 수출 분위기 확산, 수출전문가가 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하우 습득, 중소기업체의 수출전문가 양성, 회원사 무역담당 실무자들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우리 전기산업 제조업체에서 수출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30여명 내외가 참가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2001년도 전기 산업 수출입 동향 및 품목별 현황(전기산업진흥회) ▲2002년도 국내산업전망 및 세계경제동향(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하여 수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수출전문인력이 필히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해외 마케팅 전략 및 세일즈기법, 국별·지역별 상거래관습의 이해, 한국상품의 현주소와 거래선 발굴 등에 대하여 특별강좌도 마련할 예정이며, 끝으로 해외 수출시 겪은 수출경험사례 발표 및 수출촉진 대책에 대한 업계와의 자유토론을 가지는 것으로 본 교육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